스위스 가을 여행.

가장 빛나는 가을을 만나는 방법

가을 하이킹, 자전거 투어, 파노라마 기차, 가을 맛집
오색 빛깔의 낙엽 카펫을 걷고
가을 우수 짙게 내려앉은 호숫가 산책하고
햇포도주 담는 와이너리 찾아보고
파노라마 기차 타고 가을 풍경 달리고
가을 특선 내놓는 맛집 찾아보고

모든 게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가을이다. 빛은 보드랍고, 색채는 짙고, 공기의 내음은 상쾌하고, 심지어 바람의 느낌도 다르다. 9 월과 11 월 사이는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강렬한 발견과 체험에 좋은 감각적인 시기다. 오색 빛깔의 낙엽이 카펫을 이루는 알프스 들판과 어느새 첫눈이 내린 고산지대가 자연의 품속을 거닐며 잠시라도 이 가을을 온몸으로 느껴보라고 손짓한다. 도시의 가로수와 호숫가에도 짙은 가을이 찾아든다. 그 화려한 감각의 풍경 속으로 떠나볼 방법을 소개한다.

1. 융프라우 지역(Jungfrau Region)

새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는 세 개의 만년설 봉우리,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다. 이 산들이 뿜어내는 매력은 융프라우 지역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데, 절경의 파노라마와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 따뜻한 환대가 여행자들을 매료시킨다. 가을이면 황금빛 햇살이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의 산과 숲, 호수 위로 특별한 빛을 흩뿌린다. 걸어서 이 지역을 둘러보기 가장 좋은 때로, 첫눈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얀 담요로 덮기 전 자연의 파워풀한 색감을 만끽할 수 있다.

1) 뮈렌(Mürren): 쉴트호른(Schilthorn) 산자락 하이킹

로트슈톡휘테(Rotstockhütte)는 독특한 알프스 식물에 둘러싸인 뮈렌 꼭대기에 자리해 있다. 돌로 지어진 오두막으로 향하는 트레일은 쉴트호른 케이블카 역에서 시작되는데, 초록 들판과 그늘진 숲들을 둘러 지나 쉴트바흐(Schiltbach) 강까지 이어진다. 지형이 점차 가팔라지는 지점이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브린들리(Bryndli)로, 슈필보덴(Spilboden)에서 시야에 들어온다. 트레일은 바젠에그(Wasenegg)를 넘어 한참을 쉬어가기 좋은 오두막까지 이어진다. 맛있는 음식과 베르네제 알프스의 만년설 봉우리들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조금 더 쉬어가며 기력을 회복한 뒤, 와일드한 제피넨탈(Sefinental) 계곡을 통해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 좋다.

2) 쉬니게 플라테(Schynige Platte): 인상적인 산악 풍경과 다채로운 빛깔의 알프스 야생화

쉬니게 플라테를 찾는 이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하이라이트는 아이거, 묀히, 융프라우의 놀라운 풍경일 것이다. 6km 의 순환 트레일은 이 세 봉우리의 웅장한 뷰를 잘 보여준다. 이 길의 끝에서 자그마한 알프스 식물원이 여행자를 반겨준다. 650 종 이상의 다채로운 산악 식물이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알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의 2/3 가 이곳에 모여 있다. 운이 좋다면 알프호른 연주자들이 다정한 멜로디를 연주해 더 특별한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3) 이젤트발트(Iseltwald):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숫가 트레일을 따라

어촌 마을, 이젤트발트는 브리엔츠(Brienz) 호숫가 아름다운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가을이면 호수 위로 다채로운 가을 색채가 반사된다. 호숫가 트레일을 따라 걷다가 허기가 몰려오면 길 위의 레스토랑에 들러 브리엔츠 호수의 맑은 물에서 행복하게 노니는 물고기를 구경해 보아도 좋다. 그 물고기가 바로

싱싱하게 잡혀 식탁에 오를 테니 말이다. 배가 부르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한 면으로는 비취색 물빛이, 다른 면으로는 황금빛 나무들이 즐비한 길을 따라 아름다운 기스바흐(Giessbach) 폭포와 호수 위로 웅장하게 자리해 있는 같은 이름의 호텔까지 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

4) 호텔 및 레스토랑 배렌(Hotel and Restaurant Bären)

인터라켄(Interlaken) 근교의 빌더스빌(Wilderswil)에 자리한 호텔 & 레스토랑 배렌 빌더스빌에서 전통적인 것은 메뉴뿐만이 아니다. 건물 자체가 1706 년부터 마을을 대표하는 풍경이 되어 왔다. 주방에서는 전통 요리를 혁신적이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개발해 오고 있어 작은 예술 작품을 맛보는 기분이다. 이곳의 와인셀러도 흥미진진한데, 스위스 최초의 와인 은행으로, 와인 애호가들이 희귀한 와인을 적정 온도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은행의 멤버들은 와인셀러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며 리셉션이나 시음, 보관 와인 오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인기다.

5)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의 에어타임 카페(Airtime Café)

에어타임 카페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과 훌륭한 커피, 홈메이드 먹거리로 찾는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아침이면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바나나 포리지나 풍미 좋고 달콤한 프렌치 토스트를 즐기기 좋고, 점심이면 고메 샌드위치와 맛있는 수프 한 그릇을 맛보기 좋다. 오후에는 케이크 한 조각에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데, 핫 초콜릿, 마차 라떼, 글뤼바인,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 등 다채로운 메뉴 때문에 한참을 고심해야 한다. 쉬운 방법이 있다. 카페를 한 번 더 찾으면 된다.

2. 발레(Valais)

발레는 작은 와인 마을들로 유명한데, 문화, 역사, 혹은 미식 여행으로 완벽한 목적지다. 자전거를 타고 포도밭 사이를 달려 보아도 좋고, 쁘띠따르빈(Petite Arvine) 품종의 고향으로 하이킹을 떠나도 좋고, 생 모리스 수도원(Abbey of St Maurice)에서 와인 시음을 즐겨 보아도 좋다. 뢰첸탈(Lötschental) 계곡의 낙엽송 숲이 황금빛을 발하는 가을날 하이킹을 하며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은 무수하다. 파플러알프(Fafleralp) 레스토랑에서 마식 체험을 즐겨보고, 그림 같은 산정 호수를 거닐어 볼 수도 있다.

1) 마티니(Martigny) – 시옹(Sion): 발레의 와인 산지를 지나

마티니부터 시옹까지 발레의 와인 산지를 지나는 포도밭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볼 수 있다.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자전거 루트는 포도밭과 유적지, 고요한 와인 마을을 지나는 43km 의 여정이다. 마음 내키는 곳에서 머물러 가고자 한다면 와인 생산자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품질이 우수한 발레산 와인 한두 잔을 마셔볼 수 있는 포도밭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 독특한 자전거 길은 마티니의 구시가지, 라 바티아(La Bâtiaz) 성, 원형 경기장, 피에르 지아나다 재단(Fondation Pierre Gianadda)을 둘러보기에도 완벽한 코스가 되어준다.

2) 풀리(Fully): 쁘띠따르빈(Petite Arvine) 포도 트레일 위에서

와인 하이킹은 비노테크 폴테르(Vinothek Fol'terres)에서 전문 가이드와 함께 이 지역 향토 먹거리를 곁들이는 와인 시음으로 시작된다. 와인과 포도밭 오두막을 둘러보도록 고안된 이 교육 트레일은 쁘띠따르빈 품종이 탄생한 작은 마을, 풀리로 이어진다. 값진 포도가 추수되는 곳일 뿐 아니라, 매년 10 월 중순에 펼쳐지는 단밤 축제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다. 이 작은 마을에 도착하면 풀리 레스토랑의 주인들은 허기진 여행자들을 맛있는 점심으로 반겨준다. 근교 마을 사이옹(Saillon)에 있는 온천장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루의 마무리는 없다.

3) 파플러알프(Fafleralp) – 라우헤른알프(Lauchernalp): 마법 같은 계곡에서의 하이킹

뢰첸탈 계곡의 바위 하나하나, 마이엔새스(Maiensäss) 집터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파플러알프에서 시작되는 레전드 트레일은 라우헤른알프까지 이어지는데, 약 3 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로, 신화와 옛이야기 속으로 하이커들을 이끈다. 다양한 전설이 트레일 상 이어지는 열 개의 나무 둥치를 따라 펼쳐진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다. 레전드 퀴즈의 질문에 모두 답을 맞히면 작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그림 같은 슈바르츠제(Schwarzsee) 호수에서 쉬어가며 소시지를 구워 먹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보아도 좋다.

4) 사이옹(Saillon): 누보 부르(Nouvo Bourg) 레스토랑

그레고아 앙토냉(Grégoire Antonin)의 작품은 작은 예술품 같다. 사이옹의 누보 부르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열정적인 셰프의 요리는 진짜 맛있고 눈도 즐겁게 해준다. 그의 팬에서 지글대고 그의 오븐에서 구워지는 모든 것은 이 지역에서 공수한 제철 재료다. 그래서 고미요(GaultMillau) 15 점에 빛나는 이 레스토랑의 메뉴는 계절에 따라 계속 바뀐다. 현대적이고 우아하게 장식된 레스토랑은 사이옹의 옛 벽체 안에 자리해 있어 그 분위기도 독특하다.

5) 파플러알프(Fafleralp) 레스토랑

호텔 파플러알프(Hotel Fafleralp)는 해발고도 1,800m 에 자리해 있는데, 키다리 전나무와 웅장한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다. 이 역사적인 너와 지붕 가옥의 주방에서는 발레 주의 고급 특산품을 사용해 맛있는 요리를 탄생시킨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손님들은 폴렌타 튀김 폴랜투(poläntu)와 곰스(Goms) 지방의 전통 채소 파이를 맛볼 수 있다. 파플러알프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모든 요리는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 만들어진다. 뢰첸탈 계곡의 털털한 산악 문화답게 손님들이 셀프서비스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면 된다.

3. 루체른 호수 지역(Lake Luzern Region)

루체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앙 스위스로의 관문 루체른은 카펠교와 시계 상점 외에도 수많은 매력을 발산하는데, 아름다운 하이킹, 파노라마 자전거 투어, 여유로운 유람선 여정, 풍성한 레스토랑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빛나는 산 개울이 초록의 들판과 신비한 습지를 지나 구불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엔틀레부흐(UNESCO Biosphere Entlebuch)도 있다. 스위스 최초의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400km2 에 걸쳐 펼쳐져 있다.

1) 호르버(Horwer) 반도를 따라 자전거 투어

루체른에서 시작하는 파노라마 투어로, 프라이글라이스(Freigleis) 자전거 길로 이어지는데 옛 첸트랄반(Zentralbahn) 철로를 따라가게 된다. 트렌디한 노이슈타트(Neustadt) 구역을 지나 호버 반도까지 이어진다. 호숫가를 따라 난 도로를 달리며 필라투스(Pilatus), 슈탄저호른(Stanserhorn), 뷔르겐슈톡(Bürgenstock)의 아름다운 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첫 번째 휴식은 빈켈 리도(Winkel lido) 수영장에서 취하면 좋은데, 가을 정취가 드넓게 펼쳐진다. 산들의 기막힌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로 유명한 제호텔 카스타니엔바움(Seehotel Kastanienbaum)을 향해 여정을 이어간다. 이 루트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시골 풍경을 지나고 도시의 변두리를 향해 여정을 이어가다가 다시 루체른 기차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2) 필라투스(Pilatus): 꽃 트레일에서의 하이킹

필라투스 쿨름(Pilatus Kulm)에서 필라투스 최고봉인 톰리스호른(Tomlishorn)까지 이어지는 꽃 트레일(Flower Trail)은 감탄스러운 산악 파노라마와 다채로운 야생화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길이다. 가파르고 햇살 가득한 바위 경사지에는 "빌드호이플랑겐(Wildheuplanggen)"이라고 알려진 꽃이 가득 피어나는데, 오직 강인한 식물만이 이렇게 노출된 험지에서 자라날 수 있다. 필라투스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은 트레일에 설치된 많은 패널에서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식물의 종류, 개화 시기, 라틴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3) 유람선 가을 특선

햇살 가득한 가을날, 루체른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정찬을 즐겨볼 수 있다. 가을 특선으로 준비된 요리가 선상에 올라 완벽한 가을 미식 체험을 선사해 준다. 펌킨 파나코타를 올린 샐러드, 돼지고기 볼살 스튜, 향신료를 넣은 서양배 무스가 대표 메뉴다. 어여쁜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호수 위로 드리워진 가을 공기가 쾌청하다.

4)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엔틀레부흐(UNESCO Biosphere Entlebuch)

황금빛의 고대 습지, 저지대 습지를 지나 벌레잡이 식물을 찾아내며 황새풀 숲을 거닐 수 있다. 거리가 80km 가 넘는 습지 트레일은 대단한 자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울퉁불퉁한 석회암 길과 습지대 언덕들, 지난 빙하 시대에 형성된 깊은 협곡과 계곡, 가파른 석회 절벽, 시골스러운 산 소나무 습지대와 로맨틱한 산정 호수가 드넓은 지대에 걸쳐 펼쳐진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하이킹도 가능한데, 습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다.

5) 호텔 빌덴 만(Hotel Wilden Mann)의 뷔르거슈투베(Bürgerstube)

루체른 중심가에 있는 호텔 빌덴 만은 개성 넘치는 곳으로, 5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이는 호텔에 자리한 두 개의 식당 중 하나인 뷔르거슈투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을 사람들의 방'이라는 뜻의 시골스러운 식당이다. 루체른의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옛 루체른 사람들이 한 잔을 하며 어떻게 사업을 했을지 엿볼 수 있다. 1908 년의 네오고딕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진한 빛깔의 목재, 수많은 장식, 수공예 유리창이 눈에 띈다. 실내 분위기만큼이나 메뉴도 전통을 고수해 정성껏 준비된다.

4. 그라우뷘덴(Graubünden)

그라우뷘덴 칸톤을 대표하는 엥가딘(Engadine) 계곡은 대비가 화려한 풍경으로 가득한데, 울퉁불퉁한 암벽, 반짝이는 산정 호수, 초록 들판과 가을의 숲이 하이킹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다리가 피곤해 오면, 기차를 타고 베르니나(Bernina) 철로를 따라 햇살 가득한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까지 여행할 수 있다.

1) 생모리츠(St. Moritz) – 포스키아보(Poschiavo):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나는 기차 여행

엥가딘 계곡은 독특한 기차 여정으로 유명하다. 생모리츠에서 포스키아보까지 이어지는 베르니나(Bernina) 철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철도 중 일부로, 숨 막힐 듯한 절경을 지나고, 다른 기후 지대를 건넌다. 이 루트의 가장 높은 지점은 오스피치오 베르니나(Ospizio Bernina) 역으로 빙하와 험준한 산세 사이에 자리해 있으며, 포스키아보의 커다란 마을 광장에서는 와인 한 잔을 음미하며 가을 정취를 즐기기 좋다. 거대한 빙하 구멍이 있는 카발리아(Cavaglia) 마을에 들러보아도 좋은데, 수 세기 동안 물과 부유물, 돌이 바위를 침식해 만든 장관을 볼 수 있다.

2)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륌(Albergo Ristorante Alp Grüm)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의 노선 중간에 있는 알프 그륌 역은 파노라마 기차 여정을 즐기든, 하이킹이나 바이킹을 즐기든, 잠시 멈추어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기며 풍경 속에 오롯이 안겨보기 완벽한 장소다.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륌의 다채로운 메뉴에는 스위스 및 그라우뷘덴 향토 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공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매콤한 메밀 파스타, 피초케리(pizzoccheri)와 육즙이 훌륭한 코르동 블루를 특히 추천한다.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베르니나 산맥의

야생적인 풍경과 만년설, 팔뤼(Palü) 빙하, 햇살이 입맞춤하는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자료 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